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관광자원 도입 방안 연구

한 석 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초빙책임연구원
ajhan@cni.re.kr

임 준 흥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jhim@cni.re.kr

CONTENTS

1. 연구개요
2. 덕산온천 및 온천관광 현황
3.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4.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관련 관광사업 도입(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 이 연구에서는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이 추진됨에 따라 주변 지역인 덕산온천의 활성화 및 확장된 내포신도시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광 기능 도입을 위해 온천과 말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개발사업을 구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덕산온천 및 온천관광 현황, 한국마사회의 렛츠런파크 현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덕산온천의 온천자원과 말산업 자원을 결합 및 연계 활용하는 개발 모델을 제안함
- 단기적 추진 방향으로 농축식품부와 마사회의 주요 전략 사업 유치를 통한 복합힐링승마단지 개발 및 덕산온천 스파 자원과 연계한 힐링·치유 관광지 특화를 제안함
- 중장기적으로는 말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말산업 생태계 육성 및 충청남도 광역 힐링·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제5경마공원(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한 조성 규모, 적정 입지, 추진 전략 등을 검토함
- 향후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계획 등 충남도 도시정책 사업에 부합하는 최적의 발전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0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그랜드 비전과 실천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주변 지역인 덕산온천의 활성화 및 확장된 내포신도시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광 기능 도입이 요구됨
- 특히, 온천산업 쇠퇴로 활력을 잃은 덕산온천 관광지 및 주변 지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덕산온천 관광지의 온천기능과 말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개발사업을 구상하여 도시 활력 촉진 및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음

2. 연구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는 덕산온천 관광지 및 내포신도시 주변으로 설정함
-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24년, 목표연도는 2040년으로 설정함
- 내용적 범위 및 주요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음
 - 덕산온천 및 온천관광 현황분석
 -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현황분석
 -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관련 관광사업 도입(안) 구상
 - 결론 및 정책제언

02

덕산온천 및 온천관광 현황

1. 덕산온천 현황

1) 덕산온천 개요

- 덕산온천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일원에 있는 온천지구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등에 남겨진 기록으로 약 500~600년 전부터 알려진 유서 깊은 온천 지역임¹⁾
- “날개와 다리를 다친 학이 날아와 이곳에서 나오는 물을 상처에 바르며 치료한 후에 날아갔는데, 학이 앉았던 자리를 살펴보니 따뜻하고 매끄러운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라는 기록에서 기원하며, 이곳의 온천 약수를 지구유라 부르며 현재 충남문화재 제190호로 지정

2) 덕산온천 자원의 개발

- 덕산온천은 1917년 일본인 안정(安井)에 의하여 처음으로 탕을 이용한 온천으로 그 모습을 갖추었으며²⁾, 현재(2023년 기준) 온천공 수 41공, 이용시설개수 17개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덕산온천의 주요성분은 중성-알칼리성이며, 수온은 최고 36℃이고, 양수량은 14,143(톤/일)
- 게르마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 혈관순환촉진, 피하지방 제거 및 세포재생 등에 특효

1) 예산군 홈페이지. https://www.yesan.go.kr/tour/sub01_01_01_10_01.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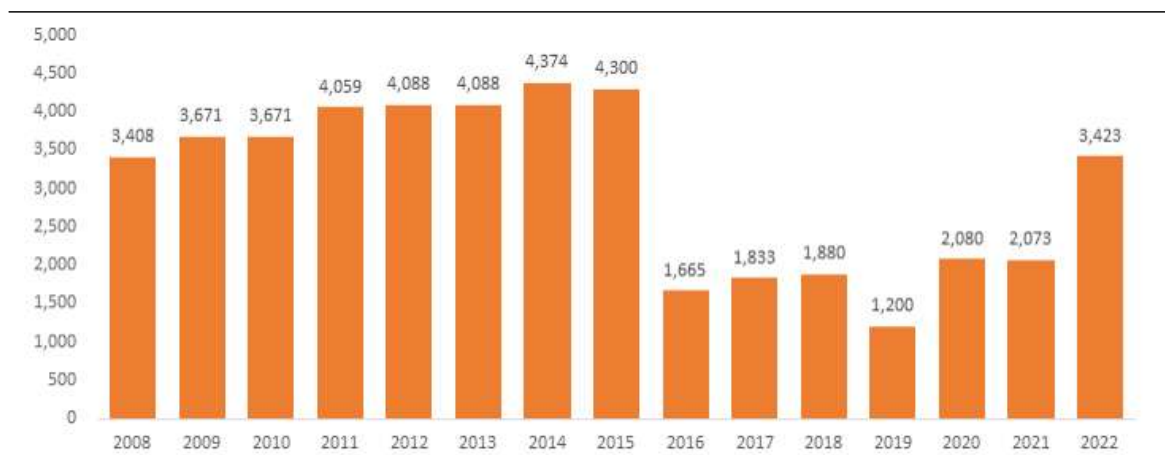
2) [네이버 지식백과] 덕산온천 [德山溫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덕산온천 이용 현황

- 덕산온천은 2008년~2013년까지 전국 온천지구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으로 성장하였으나 2014년 이후 전체 이용객이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정점에 이른 후 현재 다시 소폭 증가하는 상황임
 - 덕산온천은 한때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 이상에 이르렀으나 2016년 200만 명 미만으로 감소 후 2021년까지 답보 상태를 유지
 - 다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기준 완화로 온천 이용객이 전년도와 비교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00만 명 선을 회복
- 2022년 기준 전국 온천 이용 순위 중 덕산온천은 342만 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경남 부곡(264만 명), 3위는 충남 온양(237만 명) 순임
 - 전년 대비 덕산온천은 2단계 상승(3위→1위)하였고, 경북 보문은 3단계 상승(8위→5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인기 관광지(예산, 경주)를 중심으로 인접한 위치의 온천 이용객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

[그림 1] 덕산온천 연간 이용객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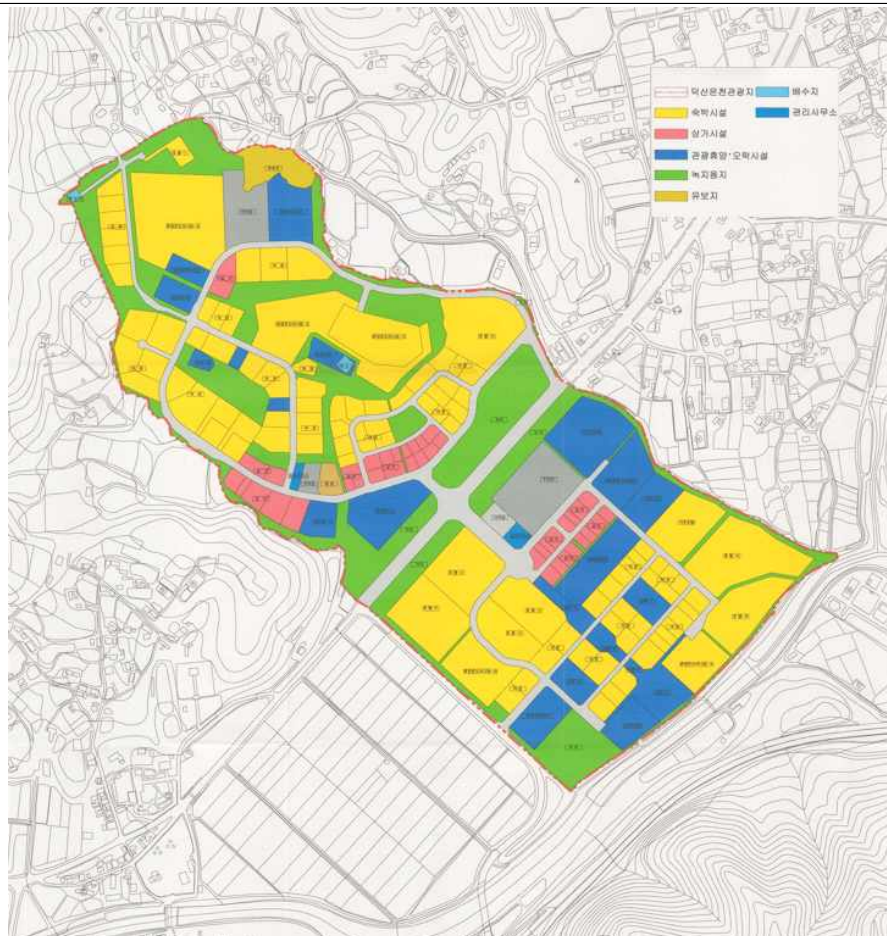
주: 2019년도는 추정치임.

출처 : 행정안전부(2016~2023). 전국 온천 현황.

2. 덕산온천 관광지³⁾

- 덕산온천 관광지는 「온천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02년 폐지)」 등 다양한 법률로 추진되었으며, 환지 방식의 관광지 개발로 토지소유권이 세분되어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
- 1987년 관광지로 지정된 후 해당 토지개발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00년 폐지)」이 아닌 「관광진흥법」 상의 환지 방식으로 구획 정리
 - 편의주의에 의한 환지개발로 많은 공유토지가 생겨났으며 일부 공공편익시설(주차장, 터미널 등)도 형식상 체비지로 분류, 결과적으로 환지 방식이 되어 개인 소유가 되면서 복잡한 토지 소유 관계로 인한 다수의 문제 발생

[그림 2] 덕산온천 관광지 토지이용계획도



3) 오용준 외(2016). 부여, 예산 주요 관광(단)지 실태 분석 및 계획적 관리방안. 충남연구원.

[표 1] 덕산온천 관광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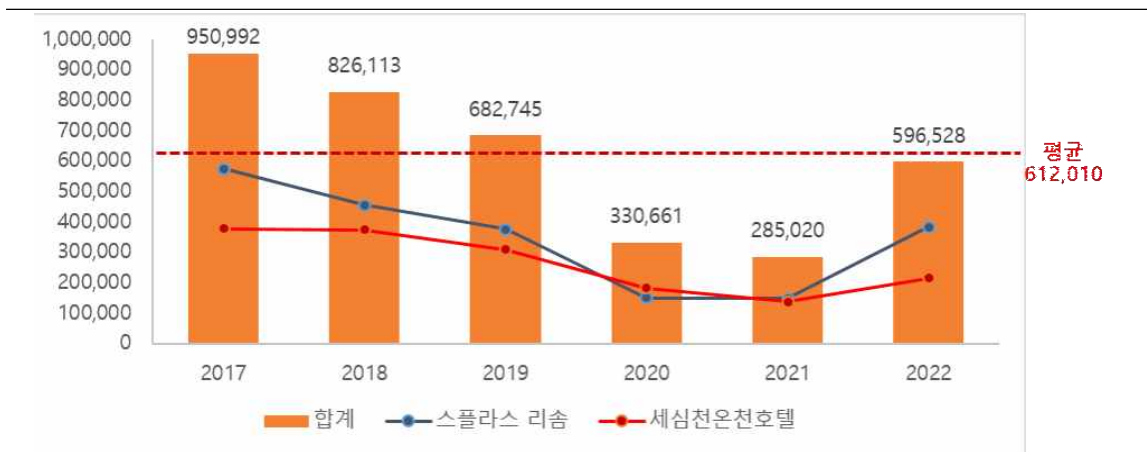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자원분류 | 자연 | 입지분류 | 온천 |
| 시도/시군구 | 충청남도 예산군 | 상세주소 | 덕산면 사동리 56-21 |
| 사업기간 | 1992~2020 | 사업방식 | 민간 |
| 지정면적(㎡) | 724,544 (약 22만 평) |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
| 지정일자(최초) | 1987-06-03 | 지정일자(최종) | 2020-09-28 |
| 조성계획 | 1987-11-24 | 조성계획 | 2020-09-28 |
| 승인일자(최초) | | 승인일자(최종) | 2020-09-28 |

출처: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https://tdss.kr/pub/busi/tourInfoView.do>)

- 덕산온천 관광지는 2021년까지 총 1,295억 원(공공 13억, 민자 1,282억)을 들여 주요 기반시설 조성, 숙박시설, 물놀이시설, 온천장 등을 유치하였으며, 지속해 민간자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한옥마을, 한옥 숙박시설, 목욕장 및 워터파크, 기타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위해 2021부터 2025년까지 약 712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162억 규모의 투자 완료⁴⁾
- 현재 덕산온천 관광지 및 주변 대표 온천 관광시설 이용객은 연평균 61만 2천 명 수준임

[그림 3] 덕산온천 관광지 대표시설 이용객 추이

(단위: 명)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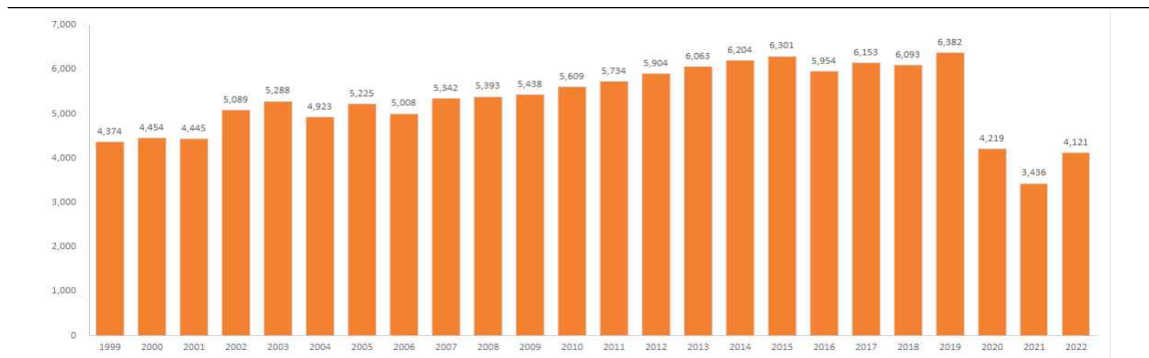
4) 예산군 내부자료.

3. 온천관광 현황

- 국내 온천 이용자는 한때 6천 3백만 명까지 이르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3~4천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림 4] 연도별 온천 이용자 수

(단위: 만 명)



출처: 행정안전부(2023). 전국 온천 현황.

- 이승욱 외(2019)⁵⁾는 Butler의 생애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방문객 수를 활용한 도시 내 관광지구 쇠퇴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온천관광지구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쇠퇴 경향을 보인다고 밝힘⁶⁾
 - 종합관광, 해수욕장, 자연 관광, 문화재 관광 등은 쇠퇴와 활성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천관광은 초반 큰 폭으로 방문객이 증가한 후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적인 정체 또는 쇠퇴로 회복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온천 관광지는 활성화 단계에서 높은 상승 폭을 보여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판단되지만, 관광 영향력이 해당 지구에 한정되어 있고 온천의 특성상 타 산업 및 콘텐츠와 결합하기 힘들므로 활발한 재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함
- 우리나라 온천관광지 대부분은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현재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시설 투자 및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영업 부진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겹치며 폐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5) 이승욱 외(2019).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6) 해당 연구는 도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온천관광지 분석을 부산(동래), 대전(유성), 아산, 울진, 창녕, 충주의 6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님.

- 이와 함께 기존에는 입욕 중심의 대중목욕 문화가 일반적인 형태였던 것에 반해 현재의 온천 소비자들은 온천관광을 숙박, 레저,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의료, 치료, 미용 등과 결합한 복합 휴양문화로 인식하고 있음⁷⁾
 - 예를 들어, 최근 주목받는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⁸⁾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활동을 통해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여행으로 스파와 온천이 중심 자원 중 하나지만, 단순 입욕이 아닌 각종 테라피, 코스메틱, 한방/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한 종합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탕을 꺼리거나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소비자층이 많아졌으며⁹⁾, 찜질방, 독립형 스파 및 1인 세션샵의 이용 확산, 사생활 우려 및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방역 강화 등도 온천관광 쇠퇴 원인과 연관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온천은 대체로 대중탕형 또는 워터파크형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온천관광지에 대한 매력도가 낮고, 현재 주 고객층이 장년 또는 노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극적 소비 및 주변 상권으로의 연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국내 관광객의 온천 및 스파 이용 경향 역시 호텔, 마사지, 수영장, 피트니스, 휴식 등 고급화, 개인화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추세임

[그림 5] 온천(좌) 및 스파(우)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출처 : 문화센터. <https://stat.mcst.go.kr>

- 다만, 온천자원 자체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향후 자원의 활용 수준 및 접근 방식에 따라 온천산업 및 지역경제 재활성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7) 이승욱 외(2019).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8) Global Wellness Institute. <https://globalwellnessinstitute.org>

9) 한국일보(2023.01.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617130001082>

1. 렛츠런파크 개요

1) 설립 목적

-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제1조』의 의거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표 2]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

| 사업 범위 | 내용 |
|----------------------------------|--|
|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 가. 경마의 개최 나. 말·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과 훈련 |
|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 가. 말의 생산·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장려 다. 말의 방역 및 보건·위생 라. 승마의 보급 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바. 말의 모형·형상·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국제회의 등의 개최 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
|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 |
| 4. 경마장 내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 |
|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 |

| 사업 범위 | 내용 |
|--|----|
|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
|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
|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판매·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 | |
| 10. 제1호가목·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 |
|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 |
|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 13. 유희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 |
|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 |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28&lsiSeq=246839#J36:0>)

- 렛츠런파크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6] 마사회(렛츠런파크) 주요 사업



출처 : 마사회 내부자료.

2) 사업장 현황

-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장외마권발매소(렛츠런문화공감센터), 목장(렛츠런팜)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렛츠런파크는 현재 서울, 제주, 부산의 3개소가 있으며 경북 영천에 제4경마장을 건립 중임

[그림 7] 한국마사회 주요 시설



출처: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1) 렛츠런파크 서울

- 렛츠런파크 서울은 국내 최초의 경마공원으로 1984년 5월 착공, 1989년 9월 1일 개장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의 1,149,936㎡(35만 평) 부지에 경마장, 관람대, 마사 등 총 274개 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경마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관람대의 총 수용 인원은 약 6만 명이며, 그 외 경마공원을 방문하는 입장객 수는 2019년 약 1,240만 명 수준으로 약 6조 6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함
-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매주 주말(토요일 10라운드, 일요일 11라운드 등 총 21라운드)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주마의 평균 입사두수는 총 1,320두임

[표 3] 렛츠런파크 서울 현황

| 구분 | 내용 |
|---------|--|
| 대지 및 건물 | - 1,149,355㎡ (약 35만 평), 총 274개동 |
| 관람대 | - 연면적 111,622㎡ (2개동, 58,855명 수용) |
| 마사 | - 연면적 33,675㎡ (51개동, 1,661 마방) |
| 주로 내 공원 | - 부지면적 87,874㎡, 건물 56개동 |
| 승마장 | - 31,626㎡ |
| 종사자 수 | - 약 3,970명 (일반직, 특정직, 위촉직, 경마지원직 포함) |
| 입장 인원 | - (2019년) 약 1,240만 명 - (2022년) 약 830만 명 |
| 매출액 | - (2019년) 66.559억 원 - (2022년) 58.659억 원 |

주: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인원 및 매출액 급락으로 2020~2021년 수치는 제외함.

출처: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그림 8] 렛츠런파크 서울 주요 시설



출처: 한국마사회.

(2)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2001년 7월 착공하여 2005년 9월 30일 개장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과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3동에 위치하며 1,243,103㎡(38만 평) 부지에 관람대, 마사, 승마장 등 총 150개 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더리브렛종 경주마의 생산 확대와 전국적인 경마 시대를 열기 위해 1990년대에 설립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부산과 경남 각 19만 평이 관할 부지로 되어 있으며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승마 종목이 이곳에서 개최
- 경마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관람대의 총 수용 인원은 약 1만 5천 명이며, 그 외 경마공원을 방문하는 입장객 수는 2019년 93.2만 명 수준으로 약 3천 4백억 원의 매출이 발생함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매주 금요일(8라운드), 일요일(6라운드) 등 총 14라운드의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주마의 평균 입사두수는 총 900두임
- 그 밖에도 경마공원 내 바운싱돔, 미니축구장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포니승마장(어린이 승마체험), 슬레드힐(사계절 썰매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은 무료 개방

[표 4]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현황

| 구분 | 내용 |
|---------|--|
| 대지 및 건물 | - 1,243,103㎡ (약 38만 평), 총 150개동 |
| 관람대 | - 연면적 40,501㎡ (1개동, 15,000명 수용) |
| 마사 | - 연면적 26,884㎡ (44개동, 1,162 마방) |
| 승마장 | - 16,387㎡ |
| 종사자 수 | - 약 490명 (일반직, 특정직, 위촉직, 경마지원직 포함) |
| 입장 인원 | - (2019년) 약 93.2만 명 - (2022년) 약 59.9만 명 |
| 매출액 | - (2019년) 3,439억 원 - (2022년) 2,684억 원 |

주: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인원 및 매출액 급락으로 2020~2021년 수치는 제외함.

출처: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그림 9]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주요 시설



출처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3) 렛츠런파크 제주

- 렛츠런파크 제주는 1980년대 제주 조랑말(천연기념물 제347호)이 멸종 위기에 놓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마 보호 및 육성을 근거로 경마를 개최하기 위해 개장함
- 1989년 제주경마장을 준공하고 1990년 10월 28일에 정식 개장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번지의 726,188m²(22만 평) 부지에 경마장, 관람대, 마사 등 총 100개 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경마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관람대의 총 수용 인원은 약 6천 명 수준이며, 그 외 경마공원을 방문하는 입장객 수는 2019년 약 61.4만 명 수준으로 약 3천 6백억 원의 매출이 발생함
 - 렛츠런파크 제주는 전국 3개 지점 중 부지 규모 및 수용 인원 등 시설 규모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하나, 매출액은 부산경남을 상회(2019/2022년 기준)
- 렛츠런파크 제주는 매주 금요일(7라운드), 토요일(7라운드) 등 총 14라운드의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주마의 평균 입사두수는 총 510두임

[표 5] 렛츠런파크 제주 현황

| 구분 | 내용 |
|---------|---|
| 대지 및 건물 | - 726,188m ² (약 22만 평), 총 100개동 |
| 관람대 | - 연면적 13,313m ² (2개동, 5,893명 수용) |
| 마사 | - 연면적 11,297m ² (7개동, 550 마방) |
| 종사자 수 | - 약 370명 (일반직, 특정직, 위촉직, 경마지원직 포함) |
| 입장 인원 | - (2019년) 약 61.4만 명 - (2022년) 약 40.2만 명 |
| 매출액 | - (2019년) 3.574억 원 - (2022년) 2.968억 원 |

주: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인원 및 매출액 급락으로 2020~2021년 수치는 제외함.

출처: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그림 10] 렛츠런파크 제주 주요 시설



출처 : 한국마사회.

(4) 렛츠런파크 영천(예정)¹⁰⁾

- 렛츠런파크 영천은 2009년 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건설 결정에 따른 후보지 모집에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었으며, 2012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인천 용유도, 전북 정읍시, 장수군, 전남 담양군 등 6개 지자체가 공모 참여
- 계획 당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 1,452,813m²(약 44만 평)에 총 3,657억을 투자(지방비 600억 포함)해 2만 명 규모의 관람대, 경주로, 마사, 경마시설 등의 건설을 계획함
 - 마사회가 3,057억을 부담하며, 경북도와 영천시는 지방비 각 300억 및 공원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유치 성공
 - 그러나 2010년과 2013년 정부가 지방세 감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레저세 감면 혜택 없이는 적자가 불가피해진 마사회는 개장 시기를 연기
- 개장 시기 연기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관람대 규모는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경주로는 3면에서 2면으로, 마사는 1,100칸에서 480칸으로 축소하여 추진함
- 2020년 11월 9일 사업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착공을 시작해 2026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2단계로(1단계 개장 2023년, 2단계 개장 2026년) 나누어 진행할 예정임
 - 1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은 2022년 9월 30일에 열렸으며, 1단계 661,000m²의 총 사업비는 1,857억 원이 투입
- 경북도와 영천시는 렛츠런파크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면 하루 평균 입장객이 4,700~9,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원 입장객은 연간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주 2일 경마 시행 시 연간 약 49~94만 명 수준의 입장객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천~6천억의 매출 발생 가능

1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0%9B%EC%B8%A0%EB%9F%B0%ED%8C%8C%ED%81%AC_%EC%98%81%EC%B2%9C)

2. 렛츠런파크 운영체계

1) 경마 시행체계

○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제2조』에 의해 경마선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함

- 경주거리, 상금, 출전기준 등 정해진 조건에서 2두 이상의 말을 뛰게 하여 승부를 겨루고, 경주에 고객이 돈을 걸어 적중시 배당금을 받고 즐기는 스포츠

[그림 11] 경마 시행체계



출처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표 6] 경마 주체별 역할 및 현황

| 주체 | 역할 |
|-----|--|
| 마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마시설을 갖추고 관련 규칙을 마련하여 경마 시행 및 상금 지급 - 마주 등록, 조교사·기수 면허 부여, 말 생산 및 육성 지원 |
| 마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마 소유자로 말 출전을 통해 경마에 참여 - (서울) 483명, (부경) 384명, (제주) 176명 등 총 1,043명 |
| 조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위탁받아 관리 및 훈련하는 개인사업자 - (서울) 43명, (부경) 29명, (제주) 20명 등 총 92명 |
| 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사와 계약하여 경주에 기승하는 개인사업자 - (서울) 59명, (부경) 35명, (제주) 32명 등 총 126명 |
| 관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사와 고용계약에 따라 말을 관리 및 훈련하는 근로자 - (서울) 464명, (부경) 270명, (제주) 112명 등 총 846명 |

출처: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2) 수익 구조

- 렛츠런파크는 일부 공원시설 수익을 제외한 수익 대부분이 경마 운영에 따른 마권 매출에서 발생하며, 마권 매출액의 73%는 다시 고객 배당금으로 환급되는 구조임
- 고객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27% 중 16%는 제세금(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특세 2%)으로, 4%는 이익금으로, 7%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함
 - 이익금 4%는 다시 이익준비금 10%, 경마산업 확장적립금 20%, 특별적립금 출연과 말산업 투자금 70%로 나눠 사용

[그림 12] 렛츠런파크 수익금 사용체계



출처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그림 13] 연도별 한국마사회 수익 현황

(단위: 억 원)



출처: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04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관련 관광사업 도입(안)

1. 말산업 관련 관광 개발사업 도입 방안

1) 렛츠런파크(경마시설) 도입 가능성 검토

- 렛츠런파크는 경마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경마시설의 충남도 도입 및 설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마사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락과 여러 건의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진행 등으로 단기적인 시점에 신규사업 투자에는 회의적인 상황임
 - 이는 '23년 8월, 9월 두 차례에 걸친 충남도의 마사회 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22년 10월 착공한 경북 영천 렛츠런파크(제4경마공원), 경기 화성의 말 트레이닝 센터 등 기추진 사업에 집중
- 다만, 지속가능한 말산업 활성화 측면과 기존 렛츠런파크 방문객의 세대교체 필요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음
 - 현재 렛츠런파크의 방문고객은 주로 마권만 이용하는 노년층과 일부 테마파크(파크골프장 등)만 이용하는 중년층에 한정
 -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경마시설의 레저문화공간화, 사회 공익 기능 확대 등을 지속 추진
-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경마는 사행산업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건전한 레저산업 시설로서 렛츠런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업성에 관한 지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함
 - '14년도 충남 보령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를 추진하다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

- 또한, 대상지로 거론되는 예산군(덕산면) 및 내포신도시는 현재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대상지로서 추후 연구 결과에 따라 레저 및 관광시설 도입 적합성이 확인될 수 있음
- 이상을 종합해볼 때, 단기적으로 충남도에 경마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원(렛츠런파크)이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됨

2) 충남도 말산업 관련 관광사업 추진 방향

① 기본 방향

- 본 연구의 목적인 ‘덕산온천 관광지의 재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앞선 단순 경마공원의 도입보다는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말산업과 온천산업을 연계·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렛츠런파크를 비롯한 말산업 시설이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및 상생하기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실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마사회의 사업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상해야 함
- 또한, 마사회가 신규사업 투자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말산업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준비 및 제안할 방안을 단계적·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

②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방향

- 최근 사회적 패러다임이 힐링과 치유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광산업에서도 힐링관광, 치유관광이 주요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
- 기존 입욕 중심의 온천수 활용에서 벗어나 덕산온천을 스파를 통한 힐링과 치유(spa therapy)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말과의 교감 및 승마 등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와 연계한다면 복합 힐링·치유 관광지역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나아가 예산군의 산림 및 농촌자원, 태안군의 해양자원 등을 광역적으로 연계한다면 충남도 내륙과 해안을 연계한 힐링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함

2. 광역 힐링 · 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1) 단기 추진 방향

① 덕산온천과 연계한 복합힐링승마단지 구상

- 말산업육성을 위한 제반 환경이 열악한 현시점에서 마치유를 위한 대규모 시설조성은 무리가 따르므로 단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마사회의 말산업 관련 주요 전략 및 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22~’26)’은 농축식품부 법정계획으로 경마 중심의 말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이중 관광, 레저, 힐링, 재활 등에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육성·도입함
 - (시설) 교감형 승마 체험장(힐링승마장) 조성, 말산업 직업체험관, 말 역사체험관, 비(非) 기승 말체험 시설 등
 - (프로그램) 휴양형 승마(수암산, 용봉산), 관광형 승마(덕산온천 휴양마을, 워터파크, 내포보부상촌 등 덕산온천 관광지)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한 레저승마 프로그램 개발 등

[표 7]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2022~2026)

| 구분 | 내용 | | |
|-------|---|---|---|
| 비전 | - 말과 함께, 국민 즐거운과 미래가치 창출: 더 가까운 馬, 더 든든한 馬, 더 따뜻한 馬 | | |
| 목표 | - (경제적 목표) 승마산업 규모 5,000억 원, 일자리 9,000명, 정기승마인구 80,000명 - (사회적 목표) 말이용 만족도 향상, 말산업 가치 제고 | | |
| 전략 | 즐거는 말문화 확산 | 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 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
| 추진 과제 | 1. 정기 승마인구 확산 ① 승마대회 체계화 ② 학생승마 생활체육화 ③ 유소년 승마지원센터 설치 | 1. 국산마 경쟁력 강화 ① 국산 승용마 개량 ② 말 표준 조련시스템 구축 ③ 국산 승용마 브랜드 도입 | 1. 재활·힐링 승마 활성화 ① 재활 프로그램 표준화 ② 공공승마시설 중심 재활승마 확대 ③ 힐링 승마 육성체계 마련 |
| | 2. 다양한 승마문화 조성 ① 다채로운 말 체험프로그램 확대 ② 관광·체험형 복합시설 보급 ③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강화 | 2. 말산업 유통 활성화 ① 말 유통·이력관리 체계화 ② 온라인 등 말 거래시스템 다양화 ③ 말 활용 다양화 | 2. 말 동물복지 선도 ① 말 복지기반인·인증제 도입 ② 경주·취미·종합관리체계 구축 ③ 말 종합방역체계 구현 |
| | 3. 안전한 승마환경 강화 ① 안전한 말 이용체계 구축 ②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 운영 ③ 맞춤형 기승프로그램 보급 | 3. 말산업 인력 전문화 및 취·창업 지원 ①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 ② 말산업 취업업 지원 강화 ③ 말산업 자격제도 체계화 | 3. 사회 공익기능 확대 ① 말 관련 공익사업 확대 ② 말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③ 건전한 말 문화 조성 |

주: 밑줄 친 굵은 글씨는 충남도 적용 가능 사업유형.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1).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 관련 예산은 농축식품부가 매년 시행하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및 지자체 보조로 지원하며, 특히 말산업육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승마 시설, 승마장, 교육시설, 생산·사육시설 등) 확충에 집중하도록 함
- 현재 덕산온천 관광지 및 내포신도시 인근의 승마체험시설은 용봉산 유소년 승마장이 유일하며, 마사회 협력 승마시설로서 재활힐링과 유소년 승마 등을 복합 수행하는 홍성군 승마장은 역내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

[표 8]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시(2023년 기준)

| 구분 | 내용 | | | | | | |
|----------------------------------|--------------------------------------|-----|-----------|-------|-------|-----|-------|
| 사업대상자 | - (공공 승마시설, 말 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 | | | | |
| |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지자체, 농축협 | | | | | | |
| |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지자체 | | | | | | |
| | - (승마길 조성) 지자체, 농축협 | | | | | | |
| | | | | | | | |
| 지원형태 | 구분 | | 국비 |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
| | 공공승마시설, 말관련문화시설 | | 40% | 40% | - | 20% | |
|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 40% | 60% | - | - | |
| | | 농축협 | 40% | - | - | 60% | |
|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 40% | 60% | - | - | |
| | 승마길 | 지자체 | 40% | 60% | - | - | |
| | | 농축협 | 40% | - | - | 60% | |
|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 | | | | | | |
| 지원한도액 | 구 분 | | 사업비 (백만원) | 국비 |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 | 공공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신 설 | 2,000 | 800 | 800 | - | 400 |
| | | 개보수 | 1,000 | 400 | 400 | - | 200 |
|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 3,000 | 1,200 | 1,800 | - | - |
| | | 농축협 | 3,000 | 1,200 | - | - | 1,800 |
|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 3,000 | 1,200 | 1,800 | - | - |
| | 승마길 | 지자체 | 500 | 200 | 300 | - | - |
| | | 농축협 | 500 | 200 | - | - | 300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3.2.). '23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표 9] 덕산온천 관광지 인근 승마시설 현황

| 위치 | 개인/법인 | 사업체명 | 승마시설 신고유형 | 사육두수 | 비고 |
|-----|-------|-------------|-----------|------|-------------------|
| 홍성군 | 법인 | 홍성군승마장 | 체육시설 | 21 | 마사회 협력승마시설(그린승마존) |
| | 개인 | 용봉산 유소년 승마장 | 농어촌형 | 6 | '12년 신고 |
| 예산군 | 법인 | 오케이웨스턴승마클럽 | 체육시설 | 6 | '21년 신고 |
| | 법인 | 아그로랜드 | 농어촌형 | 4 | '12년 신고 |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② 스파 자원과 연계 힐링·치유 관광지로 특화

- 현재 덕산온천 관광지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국가 보양 온천수인 스플라스 리솜 및 내포 보부상촌 등 주요 관광·숙박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기타 숙박시설, 물놀이시설, 온천장 등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에 진행중임
- 앞서 제안한 승마시설 및 프로그램 일부를 덕산온천 관광지 내외에 도입하여 덕산온천을 힐링과 치유 관광지로 특화하는 방안을 구상함
- 이를 위해 관광지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광지 내 유희시설과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힐링·치유 관광을 위한 신규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함
 - (내포보부상촌 등 기존 관광지 활용) 관광지 내 공공 및 민간승마시설과 연계한 관광형 승마 프로그램, 비(非)기승 교감형 말체험, 어린이/학생체험 프로그램, 가야산 코스를 활용한 힐링승마 트레킹 등 운영
 - (유희시설 및 나대지 활용) 스파와 마치유를 통해 정서적·육체적 힐링을 할 수 있는 복합힐링단지(힐링승마장, 스파힐링관 등), 가족형 관광객을 위한 여가 및 레저시설, 인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업무 및 연수시설 등 도입

[그림 14] 복합힐링단지 구상도(안)



- ① 업무 및 연수시설: 공공 위케이션 센터, 공무원 마음건강 치유센터, 미팅·세미나·컨퍼런스룸, 숙박시설 등
- ② 휴양 및 치유시설: 스파힐링관, 힐링승마장, 명상관 등
- ③ 여가 및 레저시설: 공공형 키즈카페, 호캉스(horse-vacance) 파크 등

출처 : 충청남도 내부자료.

2) 중장기 추진 방향

①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

- 향후 제5경마공원(렛츠런파크) 등 대규모 복합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남도 내 말산업이 종합적으로 육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말산업특구 지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말산업특구는 「말산업 육성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하여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 현재 충남도는 말산업과 관련된 제반 환경(승마장, 사육농가 등 사업체 및 등록마 수)이 타 시도와 비교해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덕산온천 관광지 주변(예산군, 홍성읍 등)은 충남도 전체 말 사업체 및 사육마의 14~17% 수준임
 - 사업체 9개소(전체 51개소), 사육두수 79두(전체 468두) 보유
- 말산업특구는 현재 제주도('13년), 경상북도('15년), 경기도('15년), 전라북도('18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농축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라북도를 제외한 3개 특구에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과천), 렛츠런파크 제주, 렛츠런파크 경북영천)이 설치 또는 설치 예정

[표 10] 말산업특구 지정지역 및 지정요건

| 지역 | 지정연도 | 지정요건(법적요건) |
|------------------------|------|--|
| 제주도(전역) | 2013 | ① 승마시설, 승마장 및 말생산·사육농가 20개소 이상 |
| 경북(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 2015 | ② 500두 이상 생산·사육·이용시설 보유(마사 15천㎡, 운동장 50천㎡) ③ 말산업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
| 경기(용인, 화성, 이천) | 2015 | ④ 승마시설 5개소, 조련시설 1개소, 교육시설 1개소 이상 |
| 전북(장수, 익산, 김제, 완주, 진안) | 2018 | ⑤ 해당 지자체별 지리적으로 연접 ⑥ 해당 지자체 말산업 진흥계획서를 수립할 것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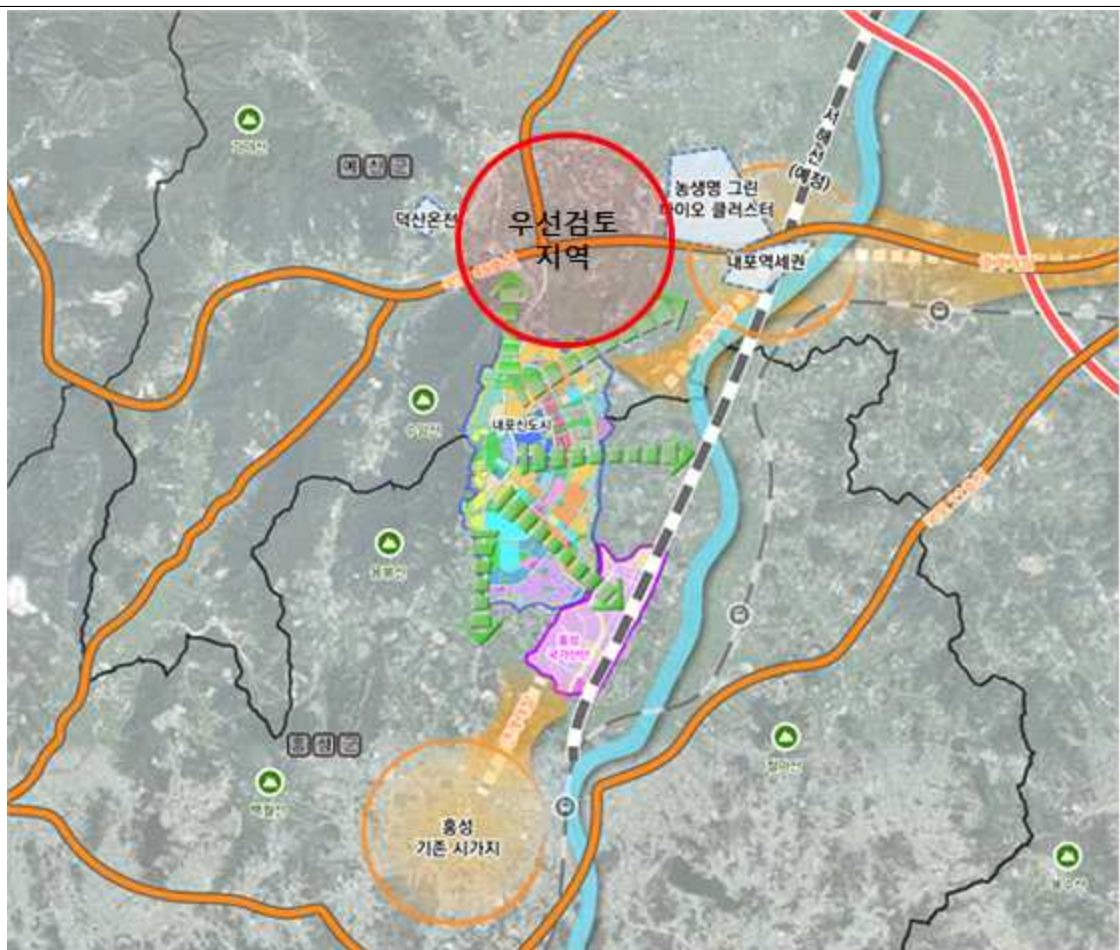
- 이에 복합 힐링·치유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 및 육성 측면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힐링승마 포함) 설치, 생산·사육농가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등을 구축함

② 충청남도 광역 힐링·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 기존 덕산온천 관광지 주변에 신규로 설치될 복합힐링단지(힐링승마장, 스파힐링관 등)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토대로 ‘스파치유’와 ‘마치유’가 결합된 힐링관광 메카로 조성하고, 이를 덕산온천 주변에 산재한 다양한 힐링·치유자원과 연계하여 충청남도 광역 힐링·치유자원 클러스터로 연계함
- 도내 산림치유(국립예산치유의숲, 봉수산 자연휴양림) → 농업치유(착한농촌체험세상, 대홍슬로우시티) → ‘마치유(복합힐링승마단지)’ → 스파치유(덕산온천) → 해양치유(태안 해양치유센터)로 이어지는 광역 클러스터를 완성함
- 이상의 과정을 토대로 덕산온천 관광지 및 내포신도시 주변을 힐링과 치유가 중심이 된 여가·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말산업 힐링 클러스터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제5경마공원(렛츠런파크) 유치를 추진함
 - 본 연구가 제안한 농축식품부의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마사회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및 말산업특구 등 기반 및 생태계 조성이 준비된다면 향후 제5경마공원(렛츠런파크)의 유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
 - 그 밖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자본 보조, 규제 완화 등 직접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
- 렛츠런파크의 규모는 기존 운영시설이 평균 730,000~1,450,000㎡(22~44만 평) 수준임을 고려하여 최소 1,000,000㎡(약 30만 평)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실제 추진 단계에서 경주로(면 수), 관람대(수용객 수) 등 수용력 및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며,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운영시설 규모를 근거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검토
 -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산경남은 부지 내 승마장 등 관리 및 교육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의 경우 약 66만 평 규모의 렛츠런팜 제주(목장)를 별도 운영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된 덕산온천 관광지 규모는 724,544㎡(약 22만 평)로써 지정구역 내 렛츠런파크 규모의 시설 도입은 역부족이며, 연접 지역들도 주로 준주거 또는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입지 규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적정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추후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결과로 설정될 확장 구역을 토대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지 설정이 계획되어야 함
- 다만, 덕산온천 관광지와의 지리적, 기능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포신도시와 덕산온천 관광지 사이의 예산군 신리(수암산로), 안치리, 송산리 등을 우선 검토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15] 내포신도시 확장 계획(안) 및 우선검토지역



출처: 충남연구원 내부자료.

[그림 16] 충청남도 광역 힐링·치유관광 클러스터 구상(안)



출처 : 충청남도 내부자료.

0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마사회의 경영 여건, 주민 반발 가능성 등 단기적인 관점에서 덕산온천 관광지 및 내포신도시 주변에 경마시설을 중심으로 한 렛츠런파크가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경마 중심의 말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마사회의 노력과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스파 치유, 동물매개치료 등 온천과 말산업의 힐링·치유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덕산온천을 스파를 통한 힐링과 치유자원으로 활용하고, 말과의 교감 및 승마 등을 동물매개치료 및 힐링 자원으로 결합 및 연계한다면 새로운 복합 힐링·치유 관광지역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덕산온천과 연계한 복합힐링승마단지 개발 및 스파 자원과 연계 힐링·치유 관광지로 특화, 중장기적으로는 말산업 특구 지정 및 충청남도 광역 힐링·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안함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제5경마공원(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한 조성 규모, 적정 입지, 추진 전략 등을 검토
- 덕산온천 관광지의 수(水)치료 및 마(馬)치료 자원을 예산군의 산림 및 농촌자원, 태안군의 해양자원 등을 광역적으로 연계한다면 충남도 내륙과 해안을 연계한 힐링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함
 - 다만, 이상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 및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 시설이나 프로그램 도입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말산업육성이 선행되어야 함

2) 정책제언

- 해당 연구는 덕산온천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내포신도시 확장에 따른 관광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써 이후 충청남도 및 예산군이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시점에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도입은 뚜렷한 도입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차후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된 이후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또한, 본 연구는 포괄적 수준에서 말산업을 도입, 육성하여 덕산온천 관광 자원과 결합하기 위해 검토되었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정책구상과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로 전략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확장 계획이 실현되었을 경우 기존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강화되겠지만 여전히 이를 지원할 여가 및 관광 기능은 부족한 현실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온천과 힐링·치유 등의 기본적인 여가 기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렛츠런파크와 같은 신규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